

【특 집】

## 해방시기 ‘만주국’ 중국문학의 해체와 평가

김 창 호\*

### 차례

- I. 서론
- II. 광복, 새로운 전환의 시대
- III. 청산의 시대, 문학의 평가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광복직후 중국 동북에서 진행된 식민지 ‘만주국’의 중국문학에 대한 해체와 평가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탈식민주의의 요지가 식민지 시대 문학의 해체와 극복에 있듯이 ‘만주국’ 붕괴 후 동북의 작가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식민주의 문학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광복직후 ‘만주국’ 문학에 대한 결산을 주도한 잡지는 1945년 12월, ‘만주국’의 수도가 있던 창춘에서 창간된 『동북문학』이다. 그러나 동북의 식민주의 해체와 평가는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라는 전환기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동북의 작가들은 탈식민주의 과제를 완성하기도 전에 새로운 국가권력에 의해 평가받는 대상이 되었다. 건국 이후 극우파 투쟁 속에서 연안파에 의해 진행된 평가는 ‘만주국’ 문학을 ‘한간문학’으로 매도하였고, 이러한 조류는 80년대 ‘무덤에서 다시 발굴’하여 재평가 받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동북의 식민주의 해체와 평가를 통해 중국의 탈식민주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 동북문학, 만주국문학, 청산, 평가, 기억

## I. 서론

1945년 8월,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다.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족이 빛을 다시 찾았다고 하여 광복이라 한다. 광복을 맞이한 민족은 일본이라는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라는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 단절되었던 민족주권을 수립해야 하고 민족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비워진 그곳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전환 작업에는 고민과 진통이 뒤따른다. 이는 문학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어쩌면 식민주의 시대에 저항과 협력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들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올 수 있다.

탈식민주의 이론의 핵심처럼, 광복을 맞은 문학계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식민주의 문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사회가 새롭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는 것처럼, 식민주의 문학을 해체하고 새롭게 문단을 건설하는 작업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광복이후 등단한 작가라면 구시대의 탄압을 고발하고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새로운 문단 건설에 동조하면 되지만, 만일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제국주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혐의를 받거나 오해를 산 문인들은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광복이라는 전환의 시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치열한 내적 전쟁이다. 이 경우, 새 시대의 조류를 감지한 작가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거나, 주위의 권유 등으로 개조의 길로 들어서며, 그렇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 전환을 강요당하거나 비판을 받아 도태된다. 식민주의 해체에는 청산과 반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명과 표백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중국현대문학사를 살펴보면 함락시기<sup>1)</sup> 문학과 마찬가지로 해방시기 문학에 대한 기술은 거의 누락되어있다. 함락시기 문학의 경우, 해방과 더불어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청산을 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식민지 문학은 문학적 가치가 없어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선입관 때문이거나, 아니면 '중화민족 대가장'이라는 국가통합의 정책 아래서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만한 기록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 때문에 문학사 서술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종전 후 식민지 청산이 말 그대로 깨끗하게 처리되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해 작가의 행적과 작품에 대한 정확한 논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만 식민지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천편일률적으로 친일분자라는 고깔을 씌운 것이라면, 이는 식민지 극복과정에서 기존 작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문학사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문학사에서 해방시기 문학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시기구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문학사 시기구분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문학을 현대문학으로, 건국이후의 문학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당대(當代)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의 차별화와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정치이념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해방시기 문학의 경우, 중국현대문학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서 당대문학으로 전환되는 중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최근 들어 '20세기 중국문학사와 같이 중화민국 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문학을 하나로 묶어 서술하는 경향도 나타나지만,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한 기술은 문학의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게 때문에 여전히 소홀히 하고 있다.

1)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의 부분적 점령을 강조하기 위해 '식민지 시대'나 '강점기'라는 표현보다는 '함락지역', 혹은 '함락 시기'라는 의미에서 '윤합구(淪陷區)', 혹은 '윤합시기(淪陷時期)'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일제 강점 시기(지역)에 대하여 '함락시기(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문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이라도 작가나 작품, 문학사조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어져 발전하는 것이고, 국공내전에서 건국으로 이어지는 당시 중국사회의 흐름이 해방구의 연속과 확대라고 한다면, 이 시기의 문학 활동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전환기 문학의 주요 과제가 구시대 문학 청산과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문단의 건설이라고 볼 때, 공산당이 중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 문단 삼국지 중 해방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지역, 즉 국민당 통치지역인 국통구와 일본 제국주의에 노출된 함락지역 문학을 어떻게 청산하였고, 또 공산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문단을 어떻게 건설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당대문학사의 성격을 고찰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 함락지역 문학에 대한 평가와 청산 문제는 식민주의 해체와 극복이라는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와 상응하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문학의 중국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해방시기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문단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에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만주사변이후 14년 동안 ‘만주국이 자리한 동북지역은 타이완을 제외한 중국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식민주의에 노출된 곳이다. 따라서 전후(戰後) 동북에서 진행된 식민시대 문학 청산에 대한 고찰은 중국식 탈식민주의 문학연구의 전형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비교문학으로 시야를 확대해서 본다면 좀 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유사한 경험을 한 중국 내 다른 함락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다른 지역과의 비교 가능성이 있으며, ‘만주국’이라는 동일한 ‘문학장(場)’에서 발생한 재만 조선인 문학의 청산과 재건 연구에도 참고조가 될 수 있다.<sup>2)</sup>

2) 해방공간에서 진행된 조선족 문단 재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성호 외 저, 2007,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중국)민족출판사, 제4장 참조.

둘째, 동북문학이라는 지역 문학사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해방시기 동북문학에 대해 연구 성과가 발표된 적이 없다. 중국의 경우, 동북 해방전쟁시기 문학에 관한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문학의 끝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현대문학사 기술에서는 소홀히 다뤄졌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당시 가장 극렬하게 논쟁을 전개한 ‘蕭軍 비판과 『文化報』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종합적 서술도 몇 권 있다. 지역문학사 연구 차원에 쓴 『동북현대문학사』<sup>3)</sup>와 『19-20세기 동북문학 역사변천』<sup>4)</sup> 등이 그것이다. 출판물과 서점의 활동에 관한 연구에는 『동북현대대문학과 문화 논고』<sup>5)</sup>가 있으며, 해방전쟁시기에 출판된 신문의 문예란에 관한 연구는 라오닝(遼寧)사범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인 「해방전쟁시기 『동북일보』 부간 연구」<sup>6)</sup>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중국당대문학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중국당대문학사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북지역은 1942년 발표된 마오쩌둥의 ‘연안문예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문예정책이 해방구 이외의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곳이기 때문에 중국을 장악하고자 하는 공산당에게 동북의 문단 개조운동은 토지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이는 향후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해방지역에서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문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해방전쟁시기 동북문단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당대문학의 성격을 파악하는 단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도 본고가 해방시기 동북문학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역은 청대(清代)에는 봉금령(封禁令)에

3) 東北現代文學史編寫組, 1989, 『東北現代文學史』, 瀋陽出版社.

4) 李春燕, 2004, 『19-20세기 東北文學의 歷史變遷』, 吉林人民出版社.

5) 逢增玉, 2012, 『東北現當代文學與文化論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 彭博, 2013, 「解放戰爭時期『東北日報』副刊研究」, 遼寧師範大學文學院.

의해 폐쇄되었고, 청대 몰락 이후에는 동북군벌이 통치하였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국’이 자리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 내부와는 먼, ‘관외(關外)’로 치부된 곳이며, 광복이전까지는 국민당이나 공산당의 세력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해도 무방하다.<sup>7)</sup> 그러나 ‘만주국’ 붕괴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무주공산이 된 동북은 중국 통일의 교두보로 인식한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 중요한 위치로 부상했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전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단활동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국공 간의 일진일퇴라는 새로운 전쟁 상황에서 동북의 문인들은 식민지 시대의 문학 청산과 새로운 문단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극심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 신념이나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하거나 선택을 강요당하는 지식인의 고뇌는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당시의 문학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주국’ 붕괴이후 전개된 동북사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본 후 ‘만주국’ 문학의 해체와 시대의 변천에 따른 ‘만주국’ 문학의 평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II. 광복, 새로운 전환의 시대

광복의 사전적 의미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음’이다. 그것은 환희이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거대한 희망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의 광복은 단순히 환희의 물결이 가득한 것이 아니며, 희망의 꿈이 낭만적인 것도 아니다. 동북이라는 땅은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주권을 다시

7) 특히, 근대시기부터 러시아가 관리했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세력 하에 놓인 따렌-뤼순 지역은 산해관 이남지역, 즉 관내와의 관계가 더욱 소원했다. 1947년 6월 17일자 『實話報』에 실린 관동문화협회(1947년 6월 15일 설립)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관동지역은 적에게 장기간 억압당했고 봉쇄당했기 때문에 조국과 거의 단절되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에서도 우리들은 외딴 섬에 버려진 고아와 같다”면서 민주정부 설립 이후 40년간 부족한 부분이 일시에 채워졌다고 전하고 있다. 胡采 主編, 1992, 『中國解放區文學書系』, 重慶出版社, 258쪽.

받은 이는 '만주국' 이전 통치세력인 동북군벌이 아니라 중국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세력이다. 일본이라는 외세의 식민주의 침략을 대신한 것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념 대립에서 발생한 내전이다. 문학의 식민주의 해체와 극복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념의 흐름에 따라 침예하게 표상되었다.

해방시기 먼저 동북을 통치한 세력은 소련군이다. 1945년 8월 9일, 이미 유럽전선에서 독일을 대파한 소련군은 작전명 '8월의 폭풍작전'으로 동북으로 진격하여 러일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동북 전역을 점령했다. 18일 하얼빈, 19일 창춘(長春), 지린(吉林), 선양(沈陽) 등지를 접수하였고, 22일에는 다롄(大連)과 뤼순(旅順) 지역까지 함락시켰다. 소련군의 파죽지세와 같은 공격에 당황한 관동군사령부는 17일에 이미 군사행동의 정지와 무기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는 '퇴위조서'에 서명했고, '만주제국은 붕괴되었다.'<sup>8)</sup> 동북인민들은 해방군인 소련군이 입성하자 열렬히 환영했다. 광장과 거리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등 소비에트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거대한 휘장으로 걸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방군'인 소련군은 점차 '정복군'으로 변했다. 그들은 승리의 대가로 공업 시설과 군사 장비 등 '만주국 유산'을 전리품으로 챙겨갔고, 민간에 대해서도 폭력을 가했다. 사회주의 원조이자 모범국인 소련의 이중성이 드러내며 만행을 이어가자, 동북인민들은 불만을 표출하였고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도움 없이는 동북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1946년 4월 14일 소련홍군이 동북에서 철군할 때까지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sup>9)</sup>

8) 소련군의 공격과 '만주국' 붕괴 과정에 대해서는 姬田光義 등 저, 편집부 옮김, 1984, 『중국근현대사』, 일월총서 27, 일월서각, 367쪽 참조. '만주국' 붕괴 이후 '만주국인'의 충돌과 수난에 대해서는 윤휘탁, 2013, 『만주국 :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해안, 427~432쪽 참조.

9) 이는 후에 동북출신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연안파의 '나팔수인' 샤오쥘(蕭軍)이 하얼빈에서 강연할 때 시민들로부터 받은 가장 큰 질문의 주제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소련이 동북 진출을 소비에트 확장을 통해 정치적, 사상적인 식민지를 건설하고, 러일전쟁에서 실패한 동북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동북은 식민주의 극복 과정에서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의 식민주의에서는 벗어났으나, 새로운 식민주의로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된 민족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탈식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만주국의 붕괴는 이 지역이 다시 한 번 국내 권력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 중국을 3등분 한 국민당, 공산당, 제국주의 중에서 제국주의가 물러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무주공산이 된 동북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자 동북을 해방시키고 통치하고 있었던 소련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했다. 국민당은 1928년 ‘동북역차’ 이후부터 ‘만주국’ 건국 이전까지 청천백일기가 나부끼던 동북에 대해 주권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권리를 주장했고, 공산당은 항일연군 등을 통한 항전에 대한 공로와 소련군의 진군을 도와 동북을 광복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공로가 있다며 동북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동북을 중시한 이유에는 주권회복이라는 대의도 있으나, 중국을 통일하는 데 동북의 광활한 대지와 자원, 그리고 관동군이 남기고 간 우수한 군사장비와 공업시설 등 ‘만주국의 유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45년 4월, 마오쩌둥이 “함락지역 중에서 동북 4성은 함락시기가 가장 길뿐만 아니라 일본 침략자의 공업 중심지이며 둔병의 요지”라고 하면서 동북에서의 지하공작을 더욱 긴밀히 할 것을 주문한 것이나,<sup>10)</sup> 국민당중앙설계국 비서장인 쑹스웨이(熊式輝)가 「동북회복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원칙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蔣介石에게 제출하면서 ‘동북을 전국 경제발전의 기지로 삼아야 한다’<sup>11)</sup>고 주장한 것은 모두 동북이 가지고

10) 謝忠厚 등 주편, 1992, 『晉察冀抗日根據地史』, 改革出版社, 550쪽.

11) 霍燎原·崔國塵, 1995, 『從淪陷到解放』, 長春文史資料47輯, 261쪽.

있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당시 '동북을 취한 자가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회자된 것처럼 중국의 새 주인을 가르는 국공내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지로 부상한 동북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 국민당의 경우 광복이 되고 두 달 뒤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장 동북행영(東北行營)' 주임 쉹스웨이(熊式輝)와 장제스(蔣介石)의 아들 장징궈(蔣經國) 등 고위급 정치인을 창춘으로 파견하여 소련군 수뇌부와 동북 접수 및 소련군 철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먼저 손을 들어준 것은 소련군을 도와 관동군과 전쟁을 벌인 동북의 항일연군이다. 그들은 전장에서 맺은 우호적 관계를 이용하여 11월 창춘의 치안 권한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 사이 공산당은 연안(延安) 해방구의 77명의 중앙위원 중 22명 등 주요 간부와 10만의 병력을 동북으로 이동시켜 동북민주연군을 결성하여 동북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했다. 이에 국민당은 소련과의 공식적인 국제관계를 이용하여 공산당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동북민주연군은 1946년 4월 14일 소련군이 철군한 날 오후 창춘을 기습 공격하고 중공 동북국(東北局)을 메이허커우(梅河口)에서 창춘으로 이전했다. 한 달 뒤인 5월 23일에는 국민당이 총공격하여 다시 창춘을 탈환하여 1948년 10월 21일까지 통치했다. 창춘을 잃은 공산당은 송화강 이북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북만과 동만 지역에 대해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지주와 친일협력자(한간)들을 처단하여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정책은 실천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토지개혁과 한간처단이라는 처방은 공산당이 동북의 주인이 되는 바탕이 되었다. 공산당은 1947년 4월부터 반격을 시작하여 이듬해 11월 선양에 입성함으로써 동북을 점령했다.<sup>12)</sup>

12) 소련군이 철군한 자리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일진일퇴가 이어졌다. 특히 대도시와 광복 전 발전한 공업기지가 권력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鞍山제철소의 경우, 1945년 8월부터 1948년 11월 사이에 관동군으로 시작하여 소련군의 접수, 다시 공산당과 국민당의 6회에 걸친 상호 반복

공산당의 동북 점령은 지역사의 시각에서 볼 때 동북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김한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방전쟁의 승리는 하나의 독립적 역사공동체를 유지해온 ‘요동’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 체제에 흡수되는 사건이다.<sup>13)</sup> 물론 장쉐량(張學良)의 ‘동북 역차’로 형식적이거나 잠시 중화민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1931년 9·18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국’으로 관내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통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한족(漢族) ‘이민의 홍수’<sup>14)</sup>로 불리는 ‘툼관동(鬪關東)’을 민간인에 의해 주도된 ‘변지에서 내지로의 중국화’라고 본다면,<sup>15)</sup> 동북 해방전쟁의 종결은 영토의 중국화이며, 이데올로기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숭고함을 떠나 ‘해방’이라는 미명으로 치른 전쟁의 피해는 결국 지역 인민들의 몫이다. 광복의 기쁨보다는 소련군에 의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내전에 내몰린 동북인민들의 선택과 운명은 어쩌면 루쉰이 일본 유학 시절 환등기로 만났던 힘없는 만주인일 수도 있다. 『東北文學』의 편집인 웨이창밍(韋長明)은 당신의 치안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1945년 9월부터 10월까지 나는 『東北文學』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해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 창춘은 소련홍군의 점령 하에 있었는데 사회 치안은 아직 불안정했다. 한낮에도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밤이 되면 거리에는 사람이 종적을 감췄다. (중략) 어느 날 티엔린(田琳)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찾았으나 입구를 찾지 못했다. 안전을 위해 안팎의 문을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안내에 따라 담을 넘고 창문을 기어 들어가 겨우 주

접수로 모두 8차례 지배자가 교체되었다고 한다. 마쓰모토 도시로 저, 박선영 역, 2013, 『만주국 경제유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사, 170쪽.

13) 김한규, 2005, 『천하국가』, 소나무, 582쪽.

14) 프린신깃트 듀아라 저,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나남출판사, 98쪽.

15) 윤휘탁, 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264쪽.

16) 해방전쟁에 참전한 조선인의 경우에도 ‘중국이 점차적으로 마음 속에서 하나의 고향으로, 하나의 조국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문확도 이에 따라 변하기 시작했다.’ 전성호 외 저, 2007, 『중국조선족문화비평사』, (중국)민족출판사, 227쪽.

인을 만날 수 있었다.<sup>17)</sup>

광복의 기쁨이 새로운 공포로 대체되고,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간에서 작가는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자신이 선택한 진영이 승리할 경우, 그것은 역사의 '선(善)'으로 기록되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피고가 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Ⅲ. 청산의 시대, 문학의 평가

#### 1. 광복직후 신징(新京)문단의 결산

‘만주국’의 수도 신징(新京)은 정치, 금융,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문학의 중심지였다. 특히 중일전쟁을 전후로 홍보처의 신설과 기능 강화로 기존의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 정간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 중국인 작가와 재만 조선인 작가의 문학 활동은 신징에 더욱 집중되었다. ‘만주국의 중국문단을 주도한 문예지 『明明』과 『藝文志』, 문학단체인 ‘文叢刊行會’, 그리고 『大同報』 등 신문의 문학부간과 『新滿洲』, 『麒麟』 등 대중잡지가 신징에서 창간되어 함락시기 문학사에 업적을 남겼다. 재만 조선인 문단의 경우 기존 ‘이주를 주제로 한 용정시대에서 ‘정착을 주제로 한 신징시대로 전환된 것도 『만선일보』가 신징에서 창간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르러 일본인 문단도 다롄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 일본인 문단도 ‘만주 건설의 중심’이자 ‘왕도주의자의 거리’ 신징으로 이동되었다. 따라서 ‘만주국’ 문학의 중심에 있던 창춘의 중국 문학인들은 광복 이후 ‘만주

17) 衛長明, 1986, 『『東北文學』發刊前後』, 『東北文學研究史料』 3輯, 哈爾濱文學院, 108쪽.

국 문학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시기의 문학 활동을 정리할 수 있었다.

『東北文學』은 ‘만주국’ 문학을 결산한 대표적인 잡지이다. 이 잡지는 원래 광복 이전부터 출간 논의가 있었다. 1943년 겨울, 창춘의 國民書店에 모인 몇몇 진보적인 청년 작가들은 일본의 탄압에 의해 황폐해진 동북문단을 재건하기 위해 순문학 잡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의 냉엄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광복 다음 달인 1945년 9월, 웨이창밍(韋長明)을 비롯한 작가들은 다시 국민서점에 모여 출판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들은 다음 달부터 출간하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간행 목표를 정했다.

『東北文學』은 중국문학 건설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호응하는 하나의 대오가 되기 위해 창간한다. 비록 ‘문학’이라는 이름 위에 다시 ‘동북’이라는 모자를 덧쓰고 있지만, 이것은 구분이나 파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약한 힘이나마 중국문학 창건이라는 대업에 보탬이 되고자 할 뿐이다. (중략) 따라서, 우리들은 본 잡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가는 동인잡지나, 혹은 어떤 집단에 속한 선전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협력이 있다면, 이 잡지는 동북의 문학 애호가 및 문학을 위해 헌신하는 동행자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sup>18)</sup>

창간호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발행사에 실린 이와 같은 간행 목표는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는 관내와의 관계회복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 동북은 외세에 의해 오랜 시간동안 정치적, 문화적으로 관내와 단절되다시피 했다. 따라서 동북 인민들은 광복이 되자마자 관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동북의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다른 하나는 이 잡지가 몇몇 주장이나 이념을 가진 집단의 소유물이 아닌 순문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공간에서 식민주의 청산과 새로운 이념이 혼재하

18) 衛長明, 1986, 위 문장, 108쪽.

는 가운데 순수문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광복 이전부터 견지해온 황폐해진 동북 문단의 재건을 위해서는 순수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잡지는 원고 모집과 출판비용 등의 이유로 지연되다가 연말인 12월에 제1기를 발행했다. 창간 초기 원고 모집조차 어려웠으나, 창간호가 발행된 직후 창춘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매월 평균 5, 60건을 투고할 정도로 호응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격전하는 정세로 인해 편집인이 창춘을 떠나게 되자 1946년 4월호를 끝으로 총 5기를 출판하고 정간되었다.<sup>19)</sup>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잡지를 통하여 창춘을 위주로 한 동북의 작가들은 소설 23편, 산문 31편, 시 24편을 발표했다. 또한 동북문학편집부 명의로 단떠(但斌, 田琳의 필명)의 장편소설 《獄中記》 등 24권 출판 예정이었으나, 중도에 정간하는 바람에 웨이창밍(韋長明)의 《春天一株草》 등 시집 4권만 민국도서공사에서 발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잡지가 전후 동북문단에 기여한 점은 '만주국' 식 민지 문학의 정리하고 동북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특히, 창간 다음 호인 1946년 1월호부터 3월호에 걸쳐 '結算과 展望'이라는 특집란을 신설하여 지난 14년간의 '만주국' 문학에 대해 각 장르별로 평가하는 글을 실었다.<sup>20)</sup>

먼저, '만주국에서 창작된 소설에 대해서는 야오위웬(姚遠)이 정리했다.<sup>21)</sup> 그는 「동북 14년간의 소설과 소설가(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에서 신문, 잡지, 단행본별로 소설을 정리했다. 그는 '만주국에서 발행된 신문 중, 창춘의 『大同報』, 선양의 『盛京時報』, 하얼빈의 『大北新報』와 『濱江日報』, 다롄의 『泰東日報』, 『滿洲報』, 진저우(錦州)의 『遼西晨報』와 지린의 『吉林日報』 등이 있는데, 특히 『大同報』, 『盛京時報』, 『大北新報』, 『滿洲報』, 『大同報』,

19) 衛長明, 1986, 위 문장, 109쪽.

20) 이 문장들은 1996년에 출판된 『東北現代文學大系』에 수록되어 동북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1) 姚遠, 위 문장, 689쪽.

『大北新報』 등이 문학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sup>22)</sup> 이어서 소개한 문예잡지에는 순문학 잡지 『明明』과 부정기 동인지 『文選』, 그리고 『明明』을 이어 출판된 『藝文志』가 있다. 그리고, 소설집에는 古丁의 『平沙』, 『竹林』, 『平沙』, 『新生』, 小松의 『蝙蝠』, 『無花的薔薇』, 『人和人們』, 『北歸』, 『野葡萄』, 『苦瓜集』, 疑遲의 『風雪集』, 『花月集』, 『天雲集』, 『同心結』, 爵青의 『歐陽家的人們』, 『歸鄉』, 金音의 『牧場』, 『教群』, 石軍의 『沃土』, 『新部落』, 『邊城集』, 山丁의 『山風』, 『鄉愁』, 『綠色的谷』, 韋長明的 『荀』, 方季良의 『燈籠』, 梅娘의 『小姐集』, 『第二代』, 袁犀의 『泥沼』, 秋螢의 『去故集』, 『河流的底層』, 『小工車』, 克大的 『燕』, 任情的 『碗』, 戈禾의 『大凌河』, 也麗의 『花塚』, 吳瑛의 『兩極』, 姜靈非의 『新土地』, 柯炬의 『鄉懷』 등 40권이 있다고 소개했다.<sup>23)</sup> 그중 秋螢, 小松, 古丁 등 주요 작가와 『北歸』, 『綠色的谷』 등 대표작품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평가했는데, 예를 들어 산당(山丁)의 『녹색의 계곡(綠色的谷)』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야기 서술에 치우쳤던 과거의 관습을 파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의식을 심은”<sup>24)</sup>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항상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산당과 그의 대표작 『녹색의 계곡』은 광복 직후와 80년대 이후에 들어서 만주 향토문학의 진미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두 시기의 중간단계인 문화대혁명을 중심으로 한 시기에는 한간문학으로 비판을 받는 등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기억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기억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문학에 대한 평가를 조명하는 또 하나의 개별적 방법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위에서 소개한 작품 중 광복 이후 다시 출판된 작품은 산

22) 姚遠, 1946, 「東北十四年來的小說與小說人」, 『東北文學』1卷2期. 여기에서 인용한 ‘결산과 전망’ 문장은 張毓茂가 主編한 『東北現代文學大系』를 참고하였음.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88쪽 참조.

23) 姚遠, 위 문장, 690~691쪽.

24) 姚遠, 위 문장, 694쪽.

딩(山丁)과 구딩(古丁) 등 유명 작가의 대표적 작품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라는 사실이다. '만주국' 시기 일제의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소각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방 후에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다. 이러한 예는 '만주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회고록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얼빈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된 경험이 있는 류단화(劉丹華)는 1981년에 이르러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 출판한 『젊은 날의 여적(春之餘迹)』을 소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41년 11월, 동북항일구국회가 공안기관에 의해 와해될 때, 하얼빈에서 체포되면서 이전에 쓴 작품들도 모두 없어졌다. 1945년 8월 출옥이후부터 1965년까지 쓴 원고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모두 소실되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1956년부터 1962년 사이에 쓴 장편소설 『어둠속에서의 새 삶(黑暗裏的新生)』의 초고(20여만 자)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어서 몹시 안타깝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나는 더 이상 문학작품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기로 결심했다.(중략)

1980년 3월, 성위원회 당학교에서 학습할 때, 그해 가을과 이듬해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다롄에 갈 수 있었고, 랴오닝성 도서관과 다롄시 도서관에 가서 '위만' 시기에 출판된 신문들과 건국 이후의 『랴오닝일보』, 『단둥일보』에서 과거에 발표한 작품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거기에 제목만 기억하거나 찾지 못한 작품들과 최근 몇 년간 쓴 작품들까지 합하니 모두 84편이나 되었다.<sup>25)</sup>

산문에 대해서는 린리(林里)가 「동북산문 14년의 수확(東北散文十四年的收穫)」이라는 글을 통해 정리했다. 그가 소개한 산문집은 也麗의 『黃花集』, 楊絮의 『落英集』, 但娣의 『安獲與馬華』, 幸嘉의 『草梗集』, 季風의 『雜感之感』, 그리고 劉漢의 『諸相集』 등 6권이다. 그중 也麗의 작품집 『黃花集』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당시 일제의 사상통제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생생하게 전

25) 劉丹華, 1984, 「關於『春之餘迹』」, 『東北現代文學史料』 第8輯, 遼寧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編, 283쪽.

달해주고 있다.

동북산문계의 유일한 순수 산문집이나 출판 즉시 위만의 검열기관에 의해 압수당했기 때문에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가 본인조차 얻을 수 없었으며, 단지 잡지사에서 유출된 몇 권만을 서로 돌려가며 몰래 읽을 수 밖에 없었다.<sup>26)</sup>

리원상(李文湘)은 「과거 14년의 시단(過去十四年的詩壇)」이라는 글에서, “동북 시의 사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위 대동아 전쟁을 분수령으로 이전의 시에는 비판과 반항의 역량이 다분히 담겨져 있으나,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단지 숨겨진 상징으로 밖에 승화될 수밖에 없었으며”<sup>27)</sup> 전쟁 후에는 “참된 문예가 점점 소멸되었다”<sup>28)</sup>라고 평가했다. 그는 成弦의 『靑色詩抄』, 百靈의 『未明集』, 小松의 『木筏』, 金音의 『塞外夢』, 山丁의 『季季草』, 冷歌의 『船廠』이 “비교적 순박하면서도 진솔한” 작품집이라고 평하였다. 그는 이들 작품집에 대해 간략한 총평을 곁들였다. 예를 들어 成弦의 『靑色詩抄』의 경우는 내용은 청년의 애정이 가득 차 있으나 시어가 가벼워서 막상 읽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평가하였고, 百靈의 『未明集』은 담백한 산문시로써 일본의 시조인 하이쿠(俳句)의 맛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小松의 『木筏』은 아름다운 감정이 넘쳐흐르나 『靑春詩抄』보다도 더 산문화가 되었으며, 『塞外夢』은 교과서적이고 철리적인 경향이 강한 시집이고, 『季季草』은 소설적 수법으로 열정이 가득 차 있으며, 『船廠』은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창작하였기 때문에 ‘회고파’로 불린다고 했다.<sup>29)</sup> 이어서 전후의 작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 시기의 작품집으로는 外文의 『長吟集』과 韋長明의 『七月』이 있으나, 이들 시집은 기존의 새로운 시를 창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 이전에 발표한 작품들을 엮어서

26) 林里, 『東北散文十四年的收穫』,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06쪽.

27) 李文湘, 「過去十四年的詩壇」,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79쪽.

28) 李文湘, 위 문장, 579쪽.

29) 李文湘, 위 문장, 580쪽.

출판한 작품집이라고 설명했다.<sup>30)</sup>

이어 발간된 제3기에는 멩위(孟語)가 희곡에 대해 평가한 「윤합기의 동북 희극(淪陷期的東北戲劇)」이 발표되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가장 먼저 연극 단체가 성립된 곳은 창춘이다. 대표적인 극단이 일본인이 1934년에 설립한 大同劇團이다. 1939년에는 중국 작가 山丁, 吳郎, 孟語 등이 文藝話劇團을 창단했다. 선양에는 일본의 선전 조직으로 활동한 協和劇團과 國際劇團 등이 있었다. 그러나 '만주국'의 희극은 주로 대중의 노예화와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비평하고 있다.<sup>31)</sup>

'만주국' 문학 발전사를 종합할 때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문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점이다. 1946년 3월에 발간된 『東北文學』 제1권 제4기에 발표된 『東北女性文學十四年史』에서 林리는 이와 같은 동북 여성문학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 동북 여성문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14년간의 수확에 대해서 목록별로 정리하고 있다. 단행본으로는 1933년에 출판된 蕭紅과 蕭軍의 합작 소설집인 『跋涉』, 敏子の 소설산문집인 『小姐集』(1935), 吳瑛의 소설집 『兩極』, 梅娘의 소설집 『第二代』(1940), 楊絮의 종합 작품집 『落英集』(1943), 但娣의 『安獲和馬華』(1943), 楊絮의 산문 작품집 『我的日記』(1944), 그리고 광복 직전에 출판된 朱媿의 소설집 『櫻花集』 등 8권이 있다.<sup>32)</sup> 마지막으로 논자는 동북 여류작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하기 위해 자각자신의 생활모습을 벗어 버려야 하고, 강인하고 건전한 의식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결산과 전망'은 비록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동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친일문학에 대한 비판은 있었으나 집단 이데올로기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에 나름의 객관적 입장에서 만주국 14년의 문학결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이

30) 李文湘, 위 문장, 580쪽.

31) 孟語, 「淪陷期的東北戲劇」,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647쪽.

32) 林里, 「東北女性文學十四年史」, 『東北現代文學大系·第一集 評論卷』 瀋陽出版社, 512쪽.

33) 林里, 위 문장, 523쪽.

후에 발행된 동북현대문학사나 동북윤합구문학사 기술에 초석이 되었다.

또 하나, 중국에서 진행된 광복 직후 '만주국 문학에 대한 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문학 장르에 대한 개별적 평가뿐만 아니라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스스로의 문학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주의 대표적 여류 작가인 단떠(但娣)는 “자신의 행적과 작품이 ‘위만(僞滿)’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작품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sup>34)</sup>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자신이 만주국에서 겪은 경험을 소재로 창작한 작품들이 대거 출판되는 등 비평과 창작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일제하 '만주국 문학에 대한 평가와 문학성에 대한 방향전환은 광복 이듬해부터 시작되어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복직후 나름의 성과를 거둔 '만주국 식민주의 문학에 대한 해체와 극복은 문화대혁명 등 경직되고 편파적인 문화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 2. 해방직후 연안파의 비판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중국의 문예계는 집권파인 극좌파와 이에 도전하는 중도좌파 내지는 우파 사이에 전개된 끊임없는 모순의 연속이었다. 1957년 봄, 그동안 통치기반을 공고히 다진 공산당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는 사상적, 문화적 포용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에 대한 비판도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생들과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조직적으로 비판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당국은 채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들에 대해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 기관지인 『人民日報』에는 공산당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부르조아 우파들을 공격하라는 사실이 게재되었고, 그 후 1년여에 걸쳐 이른바 '반우파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의

34) 但娣, 「關於奴化思想及僞滿作家」, 『東北文學』第一卷 第二期, 中華民國三十五年一月一日, 6쪽.

전환은 문학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장기간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던 동북지방의 경우 작가의 수와 작품의 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친일적 경향이 있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청산 작업은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1942년 이후 연안에서 문예이론을 연구하고 광복 후에는 동북문예공작자 협회 비서장 등을 역임한 차이텐신(蔡天心)은 이 시기에 출판된 그의 대표적 평론집 『文藝論集』<sup>35)</sup>에서 「반동적 한간 문예사상을 철저히 청산하자」<sup>36)</sup>라는 문장을 통하여 친일청산의 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북이 해방된 지 12년 동안 정치적인 적들은 굴복시켰으나, 문화방면의 한간과 그들이 14년간 지은 죄악행위, 그리고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도와 우리 민족에게 가한 학살은 한 번도 철저히 청산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해방 후 혁명대로로 들어간 후 장시간 반동사상을 가지고 반인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심지어 일본 제국주의에 충실한 것에 대해 “공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작품이 “진보적”이며, “회색한” 것이라는 여기고 있다.<sup>37)</sup>

그는 이 글에서 문화 한간의 대표적 인물로 구딩(古丁)과 산딩(山丁)을 지목했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구딩에게 향했다. 그는 먼저 ‘만주국’ 국무원에서 통계관, 사무관을 역임하였고, 친일 기관인 ‘滿日文化協會’의 찬조를 받아 출판된 『藝文志』의 책임자였으며, 만주작가를 대표하여 3회에 걸쳐 ‘대동아문학자 대화’에 참석한 古丁이야말로 한간 문인 중 가장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

구딩을 표적으로 삼아 비판한 그는 이어 한간문인의 제2인자로 산딩을 지목했다. 산딩의 경우 이미 광복 직후 진행된 만주소설에 대한 결산에서

35)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36) 이 글은 1957년 11월 6일에 작성한 것임.

37)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101쪽.

“비교적 성공한” 작가라는 1차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학을 창작구호로 한 한간 문인” 이라고 고깔을 씌우면서, 그의 대표작 『녹색의 계곡(綠色的谷)』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특히 악독한 것은 山丁은 자신의 이 소설에서 왜곡시켜 묘사한 생활과 인물을 이용하여 일본이 ‘9·18’사변의 발동하고 점령한 후 동북인민들을 奴役시키는 것에 이론적 근거를 주고 있으며, 일본 침략의 합리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일본의 동북 통치를 공고히 해주고 있다.<sup>38)</sup>

이와 같은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광복 직후에 진행된 결산과는 상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기억’의 주체가 위치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광복직후 만주에서 재생한 ‘만주국’ 문학에 대한 기억들은 기억의 시간과 위치가 사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보다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차이텐신(蔡天心)의 경우는 그가 활동한 공간이 연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중국의 사회사상이 극좌적인 성향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으로 찾아가 공산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 정신이 투철한 작가로 그의 눈에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던 함락구에서 활동한 작가들은 그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항일 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 경력과 애매한 문학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우파내지는 친일적 성향의 작가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성립되기 까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사회에 중심 사상이 되었던 ‘반우파 투쟁’노선도 커다란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운함구와 마찬가지로 1942년 모택동의 ‘연안문예 강화’ 이후 공산당 진영에 속한 작가들은 그가 당원이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 사이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통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38) 蔡天心,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1959, 116쪽.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지 편향된 기억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작업은 획일화된 편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기간 진행된 일련의 친일청산 작업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 IV. 결론

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문학사 연구가 지난 시기에 축적된 문학성과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그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주체의 비평 의식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의식의 형성에는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되는 사회의 경우에는 개인적 기억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 기억, 혹은 문예정책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연구대상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민감한 문제라면 이러한 힘의 작용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문학사 연구란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입장에서 지나간 문학구도를 객관적으로 복원한다기보다는 집단의 시각에 맞춰 기억의 편견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로 작용한다. '만주국' 작가 李季瘋은 그의 산문 「말함과 말하지 못함(言與不言)」(1940)에서 다음과 같이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을 토론했다.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어느 때는 말할 수 없다.’ ‘말이 없는’ 인사는 이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못 하게 한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리석은 자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이치가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고충이 있다. 만일 말하는데 이치가 없거나 말하지 못하는데 고충이 없다면, 이런 진실을 잃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병어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sup>39)</sup>

일본 식민지 시절 지식인의 언설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광복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물론 중국현대 문학이 그러하듯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도 중국 사회의 변동에 따라 많은 부침 속에 진행되어왔다. 문제는 앞으로의 생명력이다. 90년대 후반이후 중국에서의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연구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시 말해서 80년대에는 이른바 ‘만주국 작가들이 생존했고, 문화대혁명으로 지하에 있었던 그들의 작품들이 재조명되었던 시기인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서들이 출판되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청년 학자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만주국 문학 연구는 일종의 고착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만주국 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국의 ‘만주국 문학 연구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문예정책에 따라 한간문학, 아니면 항일문학으로 매우 편향되고 단색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였듯이 문학연구는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스런 연구 환경의 보장과 올바른 비평 시각, 그리고 활발한 자료 발굴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東北文學編輯部, 『東北文學』 1945.1期-1946.3期

39)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第九集 散文卷(上)』, 瀋陽出版社, 1996, 480쪽.

- 遼寧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編, 1984, 『東北現代文學史料』 第8輯
- 哈爾濱文學院, 1986, 『東北文學研究史料』 第6輯
- 張毓茂, 1983, 「要填補現代文學研究中的空白 - 以淪陷時期的東北文學為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4期
- 李春燕, 1999, 「東北淪陷時期文學與“五四”新文學之比較」 『社會科學戰線』 6期
- \_\_\_\_\_, 2000, 「關於淪陷時期東北文學研究的思考」 『瀋陽師範學院學報』 11期
- 高翔 등, 2000, 「東北, 華北淪陷區文學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 3期
- \_\_\_\_\_, 2000, 「迂曲中的求索 - 東北, 華北淪陷區文學論爭及社團形態比較」 『社會科學戰線』 3期
- 蔡天心, 1959, 『文藝論集』, 春風文藝出版社
- 東北現代文學史編寫組, 1989, 『東北現代文學史』, 瀋陽出版社
- 馮爲群·李春燕, 1991,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 吉林大學出版社
- 申殿和·黃萬華, 1991, 『東北淪陷時期文學史論』, 北方文藝出版社
- 謝忠厚·肖銀成 主編, 1992, 『晉察冀抗日根據地史』, 改革出版社
- 胡采 主編, 1992, 『中國解放區文學書系』, 重慶出版社
- 馮爲群·李春燕 等編, 1992,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瀋陽出版社
- 霍燎原·崔國璽, 1995, 『從淪陷到解放』, 長春文史資料47輯
- 孫中田, 1996, 『歷史的解讀與審美趣向』, 東北師範大學出版社
-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大系』, 瀋陽出版社
- 錢理群 主編, 2002,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廣西教育出版社
- 李春燕, 2004, 『19-20세기 東北文學的歷史變遷』, 吉林人民出版社
- 逢增玉, 2012, 『東北現當代文學與文化論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姬田光義 등 저, 편집부 옮김, 1984, 『중국근현대사』, 일월서각
- 김장선, 2004, 『위만주국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 김재용·오오무라 마쓰오 편저, 2009,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락
- 김한규, 2005, 『친하국가』, 소나무
- 나카미 다사오 외 저, 박선영 역,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사
- 프린신깃트 듀아라 저,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나남출판사
- 윤휘탁, 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 \_\_\_\_\_, 2013, 『만주국 :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 전성호 외 저, 2007,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중국)민족출판사

■ 中文提要 ■

## 解放時期‘滿州國’中國文學的解体與評價

金昌鎬

这篇文章的目的在于要考察解放时期在中国东北地区进行的对‘满洲国’中国文学的解体与评价。正如脱殖民主义的理论家们主张一样，‘满洲国’崩溃以后，东北作家的主要课题是如何清算殖民主义文学而建设新时代需要的文坛。通过1945年12月在长春创刊的《东北文学》可以看到对殖民主义文学的结算，但东北的脱殖民主义工作要在解放战争和新中国成立的转换期中。他们完成脱殖民主义工作之前，将被新的势力露出批评的对象。建国以后，在极右派斗争中，他们的成就被过去在解放区活动的‘延安派’批评为‘汉奸文学’。因此，通过这种考察可以了解到具有中国特点的脱殖民主义文学。所以为了克服这种偏见，研究者一定坚持实事求是的态度，探索新的思路，不断地发掘隐藏着的资料，去开拓更广阔的学术前景。